

선교적 교회론에서 본 한국 민중교회

황홍렬 (부산장신대학교, 선교학)

한글 초록

이 글은 한국교회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북미 교회 위기의 상황에서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사이의 삼대 대화를 통해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제기된 문제와 대안을 배우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민중교회를 살핌으로써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상호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교회 뿐 아니라 북미 교회에서도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이기 때문이어서 이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목회자들이 결국은 교회중심적 선교관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선교적 교회론이 태동된 배경과 신학적 전제와 정의, 신학적 회심과 신학적 방향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지역교회를 강조하기 때문에 선교적 지역 교회에서 신학함을 다루고, 지역교회로서의 선교활동이 갖고 있는 내용이 앞에서 언급했던 신학적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려 한다.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 선교적 리더십이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선교적 리더십의 기초와 형태를 다룬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론의 장점과 한계를 지적한다.

이런 선교적 교회론을 민중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선 신학적 회심과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북미교회가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사이의 대화를 한다면, 민중교회는 시대적 과제와 씨름하려 했기 때문에 삼자대화가 큰 의미를 갖기보다는 민중교회에 대한 민중의 반응이 초래한 민중에 대한 부정적 이해가 민중교회와 목회자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이전보다 더 확대된 민중선교를 하게 됨을 본다. 그리고 민중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의 구성요소와 신학함, 그리고 선교활동을 살펴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교적 교회론에서 본 민중교회의 장점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설교 강단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지만 그 의미를 목회자나 교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북미 교회들이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연구하며 집단연구를 통해 『선교적 교회』¹⁾(1998)라는 책의 출판 이후 2000년대 이후 많은 책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북미 교회 목회자들도 선교적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교회 상황에 적절한 선교전략이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선교적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이 글의 I부에서는 북미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나온 선교적 교회론이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사이의 심층적, 신학적 대화라고 보기 때문에

1) Darrel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우선 신학적으로 선교적 교회론이 갖고 있는 전제와 주요 주장(2장), 그리고 정의, 신학적 회심과 신학적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3장). 선교적 교회는 지역교회를 강조하기 때문에 4장에서는 선교적 지역교회를 다루되 먼저 신학함과 지역선교활동, 그리고 선교공동체의 육성 등을 다룬다. 5장에서는 선교적 리더십의 기초와 형태를 다룬 후 선교적 교회의 장점과 한계를 6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의 II부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해서 민중교회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미 교회가 제시하는 선교적 교회론에 가장 근접한 것(일부는 뛰어넘는 것)이 필자는 민중교회라고 믿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신학적 전제와 방향에 대해 살핀 후 2장에서는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사이의 삼자 대화를 하되 민중교회의 특성에 따라 민중의 부정적 반응이 민중교회 목회자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3장에서는 민중교회를 선교적 교회론의 구성요소와 신학함, 선교활동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4장은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민중교회의 장점과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은 북미 교회에서 나온 선교적 교회론을 일방적으로 민중교회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선교적 교회론의 장점으로 민중교회를 비춰 장점과 한계를 보완하도록 하고, 민중교회의 장점을 통해 선교적 교회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II.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해

1. 선교적 교회론의 배경

북미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북미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사이의 삼자간 대화를 통해 밝히는 신학적 논의와 제시한 대안을 선교적 교회론으로 말할 수 있다.²⁾ 북미 교회의 신학자 그룹은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 논하기 전에 큰 맥락에서 볼 때 뉴비긴 이외에 호켄다이크와 크레머, 보쉬 등 선교신학자들의 논의도 선교적 교회론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³⁾과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저술한 요하네스 블라우와 지역교회 입장에서 선교를 고민했던 찰스 반 엔겐도 선교적 교회론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⁴⁾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의 선교신학자로 1936년부터 1974년까지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다. 그는 남인도교회가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기서 교회일치와 선교가 불가분 관계에 있다는 그의 선교신학적 입장을 볼 수 있다. 그는 남인도교회에서 주교로 섬기던 중 국제선교협회의 회의 마지막 총무를 역임했고(1959-1961), 국제선교협회의 세계교회협의회와 통합된 후에는 세계선교와전도 분과의 초대총무를 맡았다(1961-1965). 1974년 귀국한 뉴비긴은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영국이 이교도 국가로 변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복음과 우리문화 대화모임(Gospel and Our Culture conversation)을 1980년대에 이끌며 문제와 대안을 찾으려 했다. 그의 1980년대의 저술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가 나뉘

2) 선교적 선교론에 대한 한국 선교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이후천,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접근방법들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 『선교와 신학』 제30집 (2012년 가을): 49-74.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는 한국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30집 (2012년 가을): 75-116을 참조하십시오.

3) 정승현, “서구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 및 발전,” 『선교와 신학』 제30집 (2012년 가을): 13-45.

4) 최동규, “GOCN의 선교적 교회론과 교회성장학적 평가,” 『선교신학』 제25집 (2010): 233-234.

가운데 종교가 사적세계에 머무는 것을 비판하고, 근대문화 속에서 복음의 공적 진리를 드러내고자 했다.⁵⁾ 그렇지만 1990년대 들어와서 이 모임은 경제문제 등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1998년 뉴비긴의 사망으로 막을 내렸다.

북미에서는 뉴비긴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1984년 워필드 강좌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0년대 후반에 헨스버거가 주도하여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GOCN)를 만들었다. GOCN은 북미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여기서 위기는 한편으로 북미교회와 북미문화 사이의 불일치와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북미문화의 가정들을 북미교회가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서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북미교회는 현재의 세상에 살지 않되 과거 세상에 속해있다는 점이다.⁶⁾

미국선교학회지는 1991년에 선교적 교회론을 특집호 주제로 삼았다. 헨스버거와 크레이그 밴 겔더가 그동안 GOCN에서 발표한 논문을 모아 책(The Church Between Gospel and Culture)을 출판했다. 또한 GOCN의 핵심 회원들이 3년간 집단 작업을 거쳐 1998년에 나온 책이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였다.⁷⁾ 한편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선교회 우위 구조에서 본 랄프 윈터와 대조적으로

5)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는 최형근,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ACTS, 『신학과 선교』 제31집 (2005): 369-389를 참조하십시오.

6) George R. Hunsberger & Craig Van Gelder, eds., *Church Between Gospel & Culture: The Emerging Mission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6), Introduction, xiv-xv.

7)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Mapping Trends and Shaping the Convers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46-47.

찰스 벤 앵겐은 지역교회가 선교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한 후 복음주의 진영은 선교적 회중론을 발전시켰다.⁸⁾

2. 선교적 교회의 전제

첫째,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삼자간 대화이다.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식별하고, 복음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고, 그러한 복음을 그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전하여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이다. 즉 뉴비긴은 복음과 문화/상황의 관계를 먼저 살핀 후 그 맥락에서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교회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규명한 후 그러한 교회론에 따라 우리의 문화나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려 한다.⁹⁾ 그렇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많은 책들은 ‘파송하는 하나님’이라는 접근방식의 논리에 따라 세상을 교회가 파송받는 ‘외부’라고 봄으로써 교회가 문화라는 맥락에 놓여 있음을 간과하거나 교회와 문화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는다.¹⁰⁾ 이는 선교적 교회론이 삼자간 대화이지만 교회중심적 사고가 은연중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유지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에서 중요하다. 둘째,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사이의

8) 박보경,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적 화중 모색” 『선교신학』 제32집 (2013): 210-228. 교회성장의 입장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접목시킨 논문은 최동규, “교회성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시론,” 『선교신학』 제32집 (2013): 235-262를 참조하시오.

9) Alan J. Roxbourh &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What It is, Why It Matters, How to Become One* (Grand Rapids: Baker Books, 2009), 72.

10)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Mapping Trends and Shaping the Convers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61.

삼자 대화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장은 지역교회이다. 지역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교 전략이나 방법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태도는 지역교회가 교회와 문화 사이에 가치관이 동일하다는 과거의 전제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변할 기회를 잃게 된다.¹¹⁾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지역사회, 이웃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펼치는 활동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교회의 선교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통치를 목표로 삼되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을 언약공동체로 성장시키는 과제와 언약공동체의 식구들을 잘 훈련시켜 세상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중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¹²⁾

3.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회심과 신학적 방향

1) 신학적 회심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와 교회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는 교회중심적 선교이해로부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종말론적 맥락에서 역동적으로 선교를 이해하는 신학적 회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방법과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는 풀리지 않는 북미교회의 위기에 대해 신학적 대안을 제시한다.¹³⁾ 첫번째 신학적 회심은 근대선교운동의 유산인

11) Alan J. Roxbourh &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83-84, 118.

12) 대럴 구더 편저/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서울: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293-309.

선교와 교회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다.¹⁴⁾ 근대선교운동은 교회가 세웠거나 교회로부터 독립된 선교회를 통해서 이뤄짐으로써 선교와 교회를 분리시켰다. 서구선교의 결과 세워진 신생교회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교회/서구교회와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국제 선교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에 합쳤지만 세계교회협의회 한 분과가 됨으로써 선교가 교회의 하부조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와 교회간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선교신학적 시도이다.

두 번째 신학적 회심은 교회로 교인을 끌어들이는 것(attractional church)을 선교로 이해하는 교회중심적 선교론으로부터 교회를 하나님 통치와 종말론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선교적 교회론으로의 회심이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는 교회중심적 선교에서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교회를 향한 우선적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교적 교회의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에게 누가 되시는가?’ ‘더 이상 자신을 교회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안전지대, 기존의 질문, 공식, 청사진들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알려지지 않은 길로, 지도도 없이 따라 나서야 하는 방랑자, 순례자의 길이다. 선교적 교회론에서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바람을 읽는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문화의 물결의 시험을 이겨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례의

13) 대럴 구더 편저, 『선교적 교회』, 28.

14)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18-25.

과정에서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¹⁵⁾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길로 들어서려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여전히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교회중심적 선교론의 관성이 남아 있어 복미 문화에 적절한 선교전략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경우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적 회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의) 상상력이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는 사고방식이다.”¹⁶⁾ 이러한 신학적 회심은 과거의 기독교왕국(Christendom)과 계몽주의와 근대성과 같은 근대의 문화적 가치들이 오늘날의 신학함(doing theology)에 영향을 주면서 생긴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방향을 논하면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

2) 구성요소

선교적 교회를 강으로 비유하면 선교적 교회는 신비, 기억, 선교라는 세 흐름이 합쳐진 강이다.¹⁷⁾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신비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비슷한 신비에 의해 형성되었다. 초대교회 신앙공동체는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의 징표요,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 선교적 교회에 참여함은 이러한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공적인 교회가 되거나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는 압력을 선교적 교회로 대체하는 것이다. ‘신비’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웃을 통제하는 근대적 선교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선교방

15) Alan J. Roxbourh &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16-25.

16) *Ibid.*, 84.

17) *Ibid.*, 39-45.

식을 가리킨다. 구약성서에서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백성을 유지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신 것에 대한 기억은 과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의 미래를 방향 짓는다. 근대적 문화는 기억을 낭만화시켜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오늘날 교회에서 거행되는 성만찬이 '기념'으로만 그치는 것은 교회가 근대문화에 속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선교적 교회는 이런 문화 속에서도 성만찬을 대안적 이야기로 기억하여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 선교는 이런 신비와 기억의 자연스런 결과물이다.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교회를 형성하는 신비를 통해서, 교회를 부르는 기억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신비와 기억과 선교를 통해서 형성되는 교회의 변형에 관한 것이다.

3) 신학적 방향

가) 삼위일체 신론

자유주의와 기독교왕국이 붕괴되는 때에 바르트는 선교를 삼위일체 신론에 근거해서 보냄으로 해석했다.¹⁸⁾ 그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파송했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파송한 것처럼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파송으로 보았다. 이는 선교를 교회의 파송으로, 인간의 파송으로 보던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세상으로 교회를 파송하는 것이 선교이다. 삼위일체 신론에 근거한 선교이해는

18)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26-27.

기독교왕국의 사고를 따르는 교회중심적 선교이해를 극복하고, 선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했다.

나) 하나님의 통치

예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고 했다. 그러나 복미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통치를 ‘건설’하고 ‘확장’하려 한다. 이런 이미지는 특혜를 누렸던 기독교왕국의 유산과 계몽주의와 실용적 기술을 지향하는 근대적 문화에 의존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통치를 ‘교회’ 또는 ‘인간’이 ‘건설’하고 ‘확장’한다. 반면에 성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이 들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이미지로 그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통치의 영역(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미지의 땅을 순례하는 공동체로서 모험을 감행하는 용기를 요구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지역사회에 드러내는 표적, 전조, 대리자, 도구이다.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선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¹⁹⁾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롬 14:17)이다. 복음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기쁜 소식이라는 종말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자신의 활동을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인 정의와 평화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령을 개인의 영혼에 초점을 두고, 역사적 사건과 자연, 창조와 관련짓지 않고 사랑과 은혜에 국한해서 보도록 하는 개인주의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근대인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공적 삶과 사적 삶을 나누고

19) 대럴 구더 편저, 『선교적 교회』, 145-168.

종교가 사적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며, 교회를 사회적,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근대적 문화에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화해와 치유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들을 육성해야 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구체적 사회적 현현이 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²⁰⁾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가 왜곡되게 받아들인 것은 문화의 영향 때문은 아니다. 기독교왕국의 두 가지 유산 역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교회의 왜곡에 기여했다. 하나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통치의 소식을 분리함으로써 구원을 개인적 사건으로 축소시켰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자기이해가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적 부분과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인 정의의 문제를 교회가 외면하게 되었다.²¹⁾

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과 세상과 관련하여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는 이해와 피조물에 초점을 두는 두 가지 이해가 있다. 빌링엔 대회 참석자 대부분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두었지만 호켄다이크 같은 신학자들은 피조물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그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접근방식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이 땅에 살롬, 온 피조물의 구원을 수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는 하나님의 선교의 우선적 장소가 세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한 교회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게

20) Ibid., 216-217, 223-225.

21) Ibid., 144,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29.

된 점이다. 선교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는 ‘하나님-교회-세계’라는 도식을 ‘하나님-세계-교회’라는 도식으로 대체했다. 이제부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의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속사의 과정을 통해 메시아적 왕국이라는 목표를 인류가 점진적으로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역사적 변형의 과정과 동일시하게 되었다.²²⁾

4) 하나님의 통치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목표로 하는 선교적 교회는 세상 권세와 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경제적 체제와 사회적 관계맺음 등에 나타나는 문화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많은 북미 교회들은 권세를 비판하는 능력을 상실했는데 이유는 실용적 기독교왕국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교회들이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를 채택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힘으로써 세상 권세와 악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를 비판할 능력을 상실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목표로 하는 선교적 교회는 악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고, 종말에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최후승리에 대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북미의 지배문화에 속하는 인종주의, 계급주의, 성차별 등 우상화된 권세에 대해 불순종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²³⁾

세상 속의 선교적 교회는 열국 중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라

22)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30-31.

23) 대럴 구더 편저, 『선교적 교회』, 173-179.

는 정치적 색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우선 ‘하나님의 통치/왕국’도 ‘주님’도 명백히 정치적 명칭이다. 교회 역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하셨다(골 2:15). 선교적 교회의 임무 중 하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엡 3:10)이다. 예배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닿게 꿇어 엎드려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자신의 서약으로 인해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하며, 대안문화, 대안적 윤리, 대안적인 사회관계, 대안적인 경제(안식년, 희년), 대안적인 권세 이해를 세상에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았다.²⁴⁾

4. 선교적 지역교회

1) 선교적 지역교회의 신학함

선교적 교회가 신학적 회심을 하고 신학적 방향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선교적 지역교회도 이런 신학함(doing theology)이 중요하다. 신학의 주체는 목회자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신학을 하나님은 누구시고,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가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이라고 하면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학을 하지 않는다면 선교적 교회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교적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주목하는 신앙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교회들이 신학의 주체를 전문가인 신학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방

24) Ibid., 180-189.

식이다.

신학의 유형은 로버트 슈라이어를 따라 공동체 신학, 예언적/시적 신학, 그리고 외부인의 신학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공동체 신학은 지역교회에 속한 회중이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를 성서읽기에 가져오고, 여기서 생기는 신학적 질문을 묻고 답하려는 과정을 통해 선교적 지역교회는 신학함(doin theology)의 자리가 된다. 예언자와 시인은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목소리를 신학에 부여하는 자들이다. 예언자들은 공동체 신학이 성서로부터 이탈할 때 거기에 도전하는 자들이며, 이전의 표준으로 제시된 신학에 대해 공동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통해 도전하는 자들이다. 선교적 지역교회가 신학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신학이 근시안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와 대조적인 관점을 지닌 외부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됨이라는 여정에서 신학자가 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답과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으로 들어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과 대화이다.²⁵⁾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는 자들의 신학은 전문 신학자에게서 오고, 기존 교회를 성장시키고 강화시켜주는 목소리를 찾고, 내부자 중심으로 신학함을 하고 있다.

2) 선교적 지역교회의 선교활동

선교적 지역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통해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려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공동체로서

25) Alan J. Roxbourh &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91-93.

사회의 지배적인 패턴에 대해 예언자적 도전을 하며, 리더십과 공동체의 삶의 구조가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하고자 한다.²⁶⁾ 선교적 지역교회는 교회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기존 경계/장벽을 허물고 활동하시는 성령의 선교를 식별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식별하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대안적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 선교적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현존, 사랑, 이웃에 개입을 통해 선교활동을 펼친다.²⁷⁾ 하나님의 통치의 표징과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맞본 하나님의 백성은 현존으로 선교활동을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 통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적 지역교회의 선교활동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은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 경험과 신학을 넘어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식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전략만으로 선교할 수 없다. 선교적 지역교회는 사랑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맞본 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적 지역교회는 용서가 이뤄지고, 실수를 용납하고, 연약함을 서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사랑의 실천이 문제해결이 아니라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선교적 지역교회들이 갈등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제시하는 대안적 공동체를 신뢰할 것이다.

3) 선교적 지역교회의 신앙공동체 육성

26) 대럴 구더 편저, 『선교적 교회』, 37.

27) Alan J. Roxbourh &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108-111.

자율적 자아를 강조하는 근대문화는 인간의 정체성과 마음의 습관들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현실로부터 고립되어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을 갖는 교회는 신앙공동체를 육성할 때 이웃이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독립적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는 북미문화는 신앙공동체를 육성할 때도 반역사적, 개인적, 실용적, 추상적 실천을 하도록 한다. 반면에 선교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의 정체성과 마음의 습관들이 다양한 사회의 집단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습득된다고 본다. 그래서 선교적 지역교회가 신앙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도 역사적이고, 공동적이며, 경험적이고, 역동적인 실천을 한다. 신앙공동체는 과거 신앙공동체의 역사적 여정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된다. 주의 기도는 고립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가족의 기도로 신앙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수하고, 서로를 바로 잡아주고, 서로를 용서할 때 함께 성장해간다. 신앙공동체가 육성되는 것은 오직 선교적 교회의 실천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신앙공동체의 육성은 역동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빌3.14) 달려가도록,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²⁸⁾

5.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1) 선교적 리더십을 위한 기초

선교적 교회를 형성하는 비결은 리더십에 있다. 그런데 리더십은 자신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28) 대럴 구더 편저, 『선교적 교회』, 226-236.

일을 한다. 자율적 자아를 강조하는 근대문화는 리더십을 개인의 역량으로 본다. 반면에 선교적 교회는 리더십을 하나님 통치의 종말론적 맥락에 둔다. 첫째 선교적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구체화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대면했다. 이런 대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는 길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신실한 순종에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가는 길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대면해야 함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을 이겨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선교적 리더십은 오순절 이후 성령에 의해 형성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선교적 교회의 형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를 위한 선교적 교회의 활동은 성령의 주도 하에 있는 리더십의 활동내용이다. 셋째 선교적 리더십은 종말론의 회복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백성들과 그들의 리더십은 불완전하지만 성령은 그들을 종말론적 미래로 인도한다. 선교적 리더십은 이런 종말론적 미래로 나아감 속에서 형성된다. 넷째 선교적 리더십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사람을 형성한다. 선교적 리더십은 피조물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닌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육성해야 한다.²⁹⁾

2) 리더십의 형태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이 많은 교회에서 접하게 되는 리더십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역사와 문화, 즉 기독교왕국과 모더니티의 영향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리더십이 사도로 부터 제사장으로 바뀌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29) Ibid., 272-280.

우리가 아니라 종교적 조직이 되었다. 제사장과 성직자는 로마 제국의 영적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국의 핵심에 있는 권력과 체계가 서서히 그렇지만 강렬하게 교회의 리더십을 규정하였다. 사도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에 선교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성직자 권위의 계승을 뜻하게 되었다. 종교개혁기는 리더십에 교육적 정체성, 교사의 역할을 부여했다. 계몽주의와 모더니티는 리더십으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 성직자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 중 안수를 받지 않은 리더십의 재능을 무시했다.³⁰⁾

6. 선교적 교회론의 장점과 한계

1) 장점

북미교회의 위기에 대해 선교적 교회론은 문화, 복음, 교회 사이의 삼자 대화를 통해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성찰함으로써 신학적으로 심층적이고도 입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근대선교운동 이후 선교와 교회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와 종말론의 맥락에서 역동적으로 이해한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신학적 회심과 아울러 신학적 방향을 삼위일체 신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교를 제시하되 기존 신학에 영향을 주었던 북미 문화를 식별함으로써 신학적 방향을 북미 상황에 맞게 제시한 점이 장점이다. 또 문화와 복음과 교회 사이의 삼자간 대화가 일어나야 할 장소가 지역교회라고 한 점이 장점이다. 선교적 지역교회의 상황에서 신학적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학유형들을 제시하고, 선교활동의

30) Ibid., 282-288.

방식들을 제시하고, 신앙공동체 육성을 삼자 대화 속에서 제시한 것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지역교회의 리더십의 기초와 형태를 삼자간 대화 속에서 제시하되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과 언약공동체로 나누는 것도 장점이다.

2) 한계

우선 선교적 교회론에서 제시한 문화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주로 모더니티, 계몽주의, 포스트모던 문화 등에 초점을 맞춘 선교적 교회론은 보다 넓은 의미의 산업사회 문화, 자본주의 문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의 문화 등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인종차별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사회를 괴롭힌 문제였지만 선교적 교회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미국교회에서 신앙고백을 할 때 교회의 ‘보편성’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주일 아침 교회는 미국사회에서 가장 ‘인종차별적’인 집단으로 드러난다. 미국의 300만 교회의 90%가 단일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³¹⁾ 그래서 북미문화가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해에 준 영향을 식별하고 복음과 교회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회복하는데 한계를 갖게 했다. 이는 상황(context)을 문화로만 환원시킨 환원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³²⁾ 문화에 대한 협소한 이해는 선교적 교회론을 태동시킨 뉴비긴이 바르트의 영향을 받아 〈바르멘 선언〉에 필적하는 선언문을 대처리즘과 관련시켜 작성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포레스터의 비판과 맥이 닿는다.³³⁾ 이는 9·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대량살

31) Harold J. Recinos, *Good News from the Barrio: Prophetic Witness for the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89.

32) Alan J. Roxbourh &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72.

33) Duncan B. Forrester, “Lesslie Newbigin as Public Theologian,” in *A*

상무기를 구실로 이라크를 침공하려 할 때 미국교회와 영국교회 지도자들이 전쟁과 방관 사이에 제 3의 길이 있다면서 미국 정치인들과 영국 블레어 수상 등을 만난 후 2003년 3월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6개조 계획을 실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³⁴⁾

둘째, 문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다. 대럴 구더가 편집한 『선교적 교회』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저자들은 협소한 문화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5장을 쓴 배럿과 6장을 쓴 디트리히는 이러한 경향을 일정부분 극복했다. 배럿은 왕국, 주님, 교회, 부활하신 그리스도 등에 나타난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고(180-181), 예배를 정치적 행위로 제시하고(182), 대안공동체인 교회가 대안적인 권세와 대안적인 경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다(184-185). 그는 치유에서 사회적 치유를 언급했고(204), 정결을 이웃에게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라 했고(211), 화평케하는 자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돕는 자들이라고 했다(212). 디트리히는 성찬식을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적 행위로 성찬식을 바르게 거행하는 것은 경제윤리의 문제라고 했다(245). 이들이 문화를 정치, 경제 영역으로까지 본 것은 다른 저자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도 정치와 경제를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써 추상적 논의에 그쳤다.

셋째, 선교적 교회론을 지역교회가 실천할 때 오는 한계이다. 신학적 회심과 신학적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교적

Scandalous Prophet: The Way of Mission after Newbigin, eds. Thomas F. Foust, George R. Hunsberger, J. Andrew Kirk, & Werner Ustorf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6.

34) 짐 윌리스 지음/ 정성묵 역, 『하나님의 정치: 기독교와 정치에 관한 새로운 비전』 (서울: 청림출판, 2008), 87-90.

지역교회로서 신학함의 길이나 현존, 사랑을 통해 이웃에게 개입하는 선교활동, 그리고 선교적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실천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가장 큰 어려움은 북미문화 속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선교적 교회론으로 돌아서려 해도 사람을 교회로 끌어 모으려는 교회중심적 선교관이 관성처럼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이를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북미의 교회들은 선교적 교회론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선교전략과 전도방법의 개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북미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론을 받아들여 다양한 시도를 할 때 생기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책자들의 부족이다. 선교적 교회론을 주창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렇지만 선교적 교회로 변형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릭 로우즈와 크레이그 밴 겔더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스스로를 변혁시키는데 필요한 지침서를 제시했다.³⁵⁾ 성공적인 교회변혁을 위한 7가지 지침은 이런 맥락에서 큰 의의가 있다.

35) 릭 로우즈 & 크레이그 밴 겔더/, 황병배, 황병준 역, 『선교적 교회 만들기: 성공적인 교회변혁을 위한 지침서』(고양: 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3).

Ⅲ. 선교적 교회론에서 본 한국의 민중교회³⁶⁾

1. 신학적 회심과 신학적 방향

1) 신학적 방향

민중교회는 “민중신학을 사용하며,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과 교회갱신에 참여하기 위해 민중과 함께 살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1980년대, 1990년대 남한에 세워진 교회들”이다.³⁷⁾ 민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민중신학을 신학적 자원으로 삼고, 지역사회에서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만드는 지역교회가 되고,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면서 교회갱신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들이었다. 민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했다. 또 공단지역이나 빈민지역에 들어가 민중과 함께 살면서 지역의 민중신앙공동체를 형성하되 지역사회의 민중(노동자와 빈민)을 역사의 주체로 세우고자 했다. 북미교회들이 문화와 시대변화 속에서 교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위기를 느껴 선교적 교회론이

36) II에서 다루는 민중교회는 황홍렬,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선교론』(서울: 한들출판사, 2004)를 기반으로 하여 쓰였음을 밝힌다.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황홍렬, “민중교회의 선교역사(1983-2005)와 새로운 과제” 『선교신학』 제17집 (2008년): 35-76. 민중교회라는 용어에 대해 기장은 <생명선교연대>로, 예장은 <일하는 예수회>로 교단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대체할만한 용어가 없어서 이 글에서는 민중교회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37) 황홍렬,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선교론』, 74.

나왔다면 민중교회는 군부독재 정권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한국교회 상황을 위기로 보고, 민중을 지지하고 위로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며 민중신앙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교적 교회론에서 제시한 신학적 방향 중 삼위일체 신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통치를 목표로 하고 시대적 과제와 씨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다. 민중교회의 상황, 현장은 협소한 문화와의 씨름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북미 교회의 선교적 교회론이 안고 있는 협소한 문화이해를 극복했다.

민중신학은 기독교의 민중전통과 한국의 민중전통이 현재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선교에서 합류되는 것을 증언하는 신학이다. 민중신학은 민중구원/해방사건을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방식으로 민중, 역사와 종말론으로, 민중, 메시아왕국,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민중과 성령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민중신학은 민중구원/해방사건을 토착적 방식으로 동학/천도교 방식의 한(恨)과 단(斷)으로, 탈춤과 같은 문화적 방식으로, 굿과 같이 샤머니즘적 방식으로 제시했다.³⁸⁾ 이것은 민중신학이 제시한 것일 뿐 실제로 민중교회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에서 두 이야기의 합류를 언급한 것은 기독교의 민중전통과 한국의 민중전통이 만나야 한다는 좀 더 큰 맥락을 제기한 점은 큰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 한계다.

2) 신학적 회심

민중신학은 민중해방/구원을 일으키는 사건을 증언하는 신학이다.³⁹⁾ 민중신학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고난받는 민중의 현장에서

38) 황홍렬,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선교론』, 59-65.

구원/해방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교회라고 이해한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맛보는 사건, 현장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교회론은 민중교회 초창기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공동체로 바뀌었다. 죽임의 문화, 경제, 제도들을 거슬러 살림의 문화, 경제, 교회제도를 확장하고,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공동체이다. 2세대 민중신학자 권진관은 민중교회의 행동주의를 비판하며 민중교회는 기독교적 성품과 덕성을 지닌 기독교인들을 양성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태어나는 장소라고 했다.⁴⁰⁾ 그는 실천이 사람의 성품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영성을 발전시킴으로써 품성과 덕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가 민중교회론과 관련해서 ‘행동’보다는 ‘존재’ ‘되어감’을 강조한 것은 기여라고 생각하지만, 성품, 영성, 실천 사이에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즉 존재나 존재의 변화에 우선권을 두면서도 존재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행동이 존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중교회는 ‘제도’가 없는 ‘사건’만도 아니고 ‘사건’이 없는 ‘제도’만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다. 이처럼 민중교회는 사건으로서의 교회론과 ‘제도’로서의 교회를 통합시키려 했다.⁴¹⁾ 민중교회는 ‘사건’으로서의 교회, 민중 구원/해방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교와 신앙공동체라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통합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선교와 교회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선교적 교회라 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론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으는 교회중심적 선교론을 극복한 대안이라면 민중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방향을 바르게 세웠다. 민중교회는 하나님 통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 노동자, 도시빈민들이 교회로 모일 것을 기대했다. 민중교회는 처음부터

39) Ibid., 66.

40) 권진관, 『성령과 민중』 (서울: 한울, 1993), 104.

41) 황홍렬,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선교론』, 336-338.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민중교회가 민중을 섬기면 민중이 교회로 모여 민중신앙공동체를 이룰 것을 기대했다. 이런 예측이나 기대가 잘못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밝히고자 한다. 그렇지만 올바른 신학적 방향에서 출발했어도 민중교회는 다시 사람(민중)을 교회로 끌어 모으려는 성향을 지녔다.

2. 문화와 복음과 교회의 삼자 대화

1) 문화 이해

북미의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과 문화 사이의 대화를 통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민중교회는 시대적 과제와 씨름하면서 문화 이해를 통해 민중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민중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민중교회 목회자의 자기이해, 정체성이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선교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민중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희생자들이었다. 그렇지만 민중은 자기편에 선 민중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문화산업, 언론, 교육과 종교 등을 통해 민중을 물화(reification)시킨 자본과 권력이 민중을 문화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이다.⁴²⁾ 이는 서구의 비서구에 대한 식민 지배가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고 문화적 지배, 문화제국주의에 의해 비서구 민중의 자발적 복종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명제와 상통한다.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민중이 지닌 생존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 측면이 있다. 민중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문화의 폭력성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문화적 자본을 갖고

42) 황홍렬,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선교론』, 8장을 참조하시오.

있거나 중산층 또는 지식인들에게 가능하다.

민중이 민중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문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중교회 목회자들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세군도의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틀로 보면 목적을 신앙이라고 할 때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방법)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⁴³⁾ 그런데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시대정신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방법을 사회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독교적 독자적 방식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의식화와 신앙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데 이를 거의 동일시한 오류이다. 프레이리의 의식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갖게 한다. 그렇지만 의식화가 되었다고 해서 신앙을 자연적으로 갖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알린스키의 주민조직론은 주민의 이익을 전제로 민중을 조직하는 이론이지만 이러한 이론은 신앙공동체의 형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⁴⁴⁾

2) 민중이해와 민중교회 목회자의 자기이해

민중교회는 민중을 의식화하고, 신앙을 갖게 함을 통해 역사의 주체로 세우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그렇지만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민중과 더불어 살며 민중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중의 부정적 측면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민중이 자본주의의 미끼를 얻기 위해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민중의 죄성, 이기심, 교만 등을 보면서 민중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지만 영적 억압이나 소외의 문제도 심각함을 깨달았다. 즉 민중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뿐 아니라 영적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43) Juan L. Segundo, *Faith and Ideologies* (New York:: Orbis Books, 1984)

44) 황홍렬,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선교론』, 9장을 참조하시오.

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의 바탕에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⁴⁵⁾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민중의 영적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서를 재발견했다. 1980년대에는 성서를 통해서보다는 사회과학 서적을 통해 현실을 더 잘 이해했다. 이제 그들은 성서와 사회과학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성서의 ‘영적 세계’와 ‘성서적 치유’를 발견했다. 성서를 통해 민중교회운동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대안적 세계관의 화두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영성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노동선교를 하면서도 ‘노동의 영성’을 생각해볼 수 없었다고 반성했다.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 묵상하면서 민중의 내적 치유와 내적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⁴⁶⁾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민중의 부정적 측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실존적 고민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공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지역의 민중운동가들로부터 받은 부정적 경험, 민중교회의 양적 정체, 그리고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현실과 타협하려는 자신에 대한 발견 등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목회자로 적합하지 않은 ‘상처받은 죄인’ ‘은혜를 입은 죄인’ 등으로 여기게 되었다.⁴⁷⁾ 그들의 실존적 고민은 1980년대 민중운동의 특징인 ‘과학성’을 통해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일방적 주장 이면에 있는 민중을 조정하고 통제하겠다는 계몽주의적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자신으로부터의 회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면서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민중을 주체로 세우려는 시도 자체가 민중을 대상화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45) 황홍렬,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선교론』, 243-244.

46) Ibid., 240-241.

47) Ibid., 248-253.

이런 과정을 통해 민중교회 목회자들과 민중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3) 민중선교론

위의 변화들이 반영된 민중선교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민중을 선교 대상으로 여겨 의식화와 조직(공동체 형성)을 통해 민중해방/구원을 이루려 했다. 그들은 민중으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도전(민중교회 참여거부)과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역사(국내의 급박한 정세 변화, 예상치 못한 대외 장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등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민중선교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교사의 옛 정체성(의식화, 조직, 과학성 강조)은 부인되고, 새로운 정체성(영성과 생명)을 얻게 된다. 선교사가 자신의 변화에 도전해야 하는 것처럼 선교론은 교회, 기독교, 신학을 변화시킨다.⁴⁸⁾

3. 지역교회의 신학함과 선교활동

1) 구성요소

선교적 교회의 구성요소는 신비, 기억, 선교라 했다. 민중교회가 출발한 1980년대는 이념 과잉의 시대로 민중교회 역시 이념적 지향이 강해서 노동선교와 도시빈민선교를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냉전 종식과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이념지향적 운동의 사회학적 기반이 허물어지고,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민중의 부정적 측면을 발견하면서 민중의 영적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민중교회 목회자들의 실존적 고민 속에서 자기 한계에 고민하면서 민중교회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48) Ibid., 368-369.

초창기와는 달리 다원화되기 시작했다.⁴⁹⁾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일부 민중교회는 이주노동자선교를 시작했다. 1997년 IMF 환란 이후 일부 민중교회들은 실직·노숙인선교를 시작했다.⁵⁰⁾ 장애인선교를 하는 민중교회도 생겼고, 민중교회 목회자가 교인들의 지지 하에 민중교회를 사임하고 가출청소년들과 그룹홈을 이뤘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생협을 시작하고 농촌과의 직거래를 하거나 아예 농촌으로 교회가 이전하여 생명선교를 시작하는 민중교회들이 생겼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여성민중교회인 새터교회를 창립했고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를 역임했던 손은하 목사가 농부와 결혼하고 김제로 귀농한 사례다. 새터교회 박후임 목사는 결혼 후 진안으로 귀촌했고, 여러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뒤를 따랐다. 이러한 변화는 민중교회의 중요한 선교적 패러다임인 도시농어촌선교로부터 생명선교로의 전환이다. 이는 민중교회 목회자들의 이념적 지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밖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였다. 이러한 ‘신비’는 과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민중을 구원/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되 과거의 경험이나 사상, 신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룬 새로운 선교활동이다.

2) 신학함

일부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자신의 경험인 산업선교, 이주민선교,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사회선교 등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나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을 출판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선교활동을 정리하여 출판한 책들도 여럿 있다.⁵¹⁾ 그렇지만 이 책들은 민중교

49) 황홍렬,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선교론』, 186-206.

50) 황홍렬, “실직노숙인선교,” 강수은, 정충일, 황홍렬 엮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일하는 예수회 20주년 기념출간II』 (일하는 예수회, 2004) 258-285.

51) 김현수, 『똥교회 들꽃피는 마을 이야기』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4); 박천웅,

회 목회자의 개인적 경험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민중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신학이라 할 수 있다. 민중교회 초창기의 야학, 탁아소, 공부방 활동이나 현재 다양화된 선교 활동은 교인들이 실무자로 또는 프로그램 책임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지만 선교활동에 참여했던 교인들의 경험을 신학화하는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교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활동 여건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라는 점과 목회자들이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목회자들의 행동주의가 있다. 교인들이 신학화 작업에 가장 열심히 큰 성과를 내면서 참여한 단체는 기독여민회(기여민)이다. 기여민은 민중교회 여성목회자, 사모, 여성 교인들로 구성되어 기독교성, 여성성, 민중성을 지향하는 모임이다. 기여민 총무 배영미는 기여민운동을 “민중여성의, 민중여성을 위한 현장신학”으로 보면서 기여민의 영성을 “여성민중생명신학”으로 표현했다.⁵²⁾ 기여민은 민중교회 여신자를 위한 성서연구 교재로 『여성과 성서』, 『성서가 보는 여성, 여성이 보는 성서』등을 출판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새날을 여는 여성들의 예배’를 시도했는데 ‘평등한 노동과 건강한 여성’ ‘근축과 여성복지’ 등 주제도 도전적이었지만 형식이 소리극, 민요극, 평화의 리본 잇기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1994년 제2회 종교개혁제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남, 교회의 민주적 구조 개편, 여성차별 철폐, 목회자의 위계의식 버리기, 예언자적 전통 회복,

『이주민신학과 국경 없는 마을실천』 (안산: 국경없는마을, 2006); 고 최주상목사추모위원회 편, 『맑은내 이야기: 고 최주상 목사 추모집』 (군포: 고 최주상목사추모위원회, 2009); 이원돈 지음,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1).

52) 배영미,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생명신학』, 10-11; 이은선, “한국 여성그리스도의 도래를 감지하며,” 기독여민회 엮음, 『발로쓴 생명의 역사, 기독여민회 20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94에서 재인용.

해방과 구원의 영성이 살아있는 예배 등 10개 조항을 제시했다.⁵³⁾ 선교적 지역교회의 신학함으로서의 공동체신학, 예언자적 신학, 외부인 신학의 내용을 기여민의 신학함 속에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런 다양하고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귀중한 신학함을 좀 더 심화시키는 신학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한국 신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3) 선교활동

민중교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원화되었다. 이런 다원화는 이념지향적 운동으로부터 장벽을, 경계를 너머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식별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려 했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시빈민선교로 출발했던 성남 산자교회 김해성목사는 우연히 산재 문제를 가져왔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잘 해줘서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몰려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중국 동포의 집을 시작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오는 것을 안타까워서 서울로 이전해 서울외국인노동자교회와 중국동포의 집을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이주노동자 전용병원도 개원했다. 신학교도 운영했다. 노동자선교로 출발했던 안산형제교회는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비율이 전국 평균 두 배가 넘는 지역이므로 이주노동자선교를 하게 되었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거쳐 국경 없는 마을을 제안했고, 안산다문화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⁵⁴⁾ 산업선교를 하던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귀농, 귀촌한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일부 민중교회는 녹색교회가 되었다.⁵⁵⁾ 부천에서 도시빈민선교로 출발했던 새롭교회 이원돈

53) 이은선, “한국 여성그리스도의 도래를 감지하며,” 96-100.

54) 황홍렬, “한국기독교의 디아코니아 사례와 선교신학적 의의,” 「선교신학」 제19집 (2008년): 24-25.

목사는 지역이 신시가지로 바뀌면서 변화된 상황에 적절한 지역사회복지와 마을도서관 운동 등 문화선교를 통해 NGO와 시민운동과 연대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교회 예배당 공간과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실을 포함하는 건물의 건축비 일부를 부천시 의회로부터 지원받았다. 안산노동교회를 담임하던 김현수 목사는 가출 청소년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교회를 사임하고 그들과 그룹홈을 하다가 이제는 들꽃 피는 마을로 그룹홈이 확대되고 대안학교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민중교회의 지난 20년 다원화된 선교활동은 또한 예언자적 선교활동이었다. 안산다문화교회가 제안했던 국경없는 마을은 2005년 한국사회학회의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1960년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세상이 교회선교의 의제를 결정한다는 명제를 뒤집는 사건이었다. 1980년대 민중교회운동과 함께 시작했던 탁아소와 공부방은 1990년대 초에 영유아보육법 등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이주민선교에 참여했던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법무부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허가제를 법제화 하는데 기여했고,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민중교회는 이주민, 장애인, 소외된 지역주민, 장애인, 가출청소년, 실직·노수인 등에게 현존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고, 민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요, 증인됨을 보여줬다.

55) 예정녹색교회협의회,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함께 엮음, 『녹색교회와 생명목회: 생명을 담은 녹색교회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3), 44-53, 54-59, 84-92, 108-115.

4. 장점과 한계

1) 장점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민중교회는 처음부터 신학적 회심과 신학적 방향을 세웠지만 문화보다는 시대적 과제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시대적 과제와 상황으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아 민중교회의 정체성이 약화될 정도였다. 그러나 민중교회에 대한 민중의 부정적 반응과 시대가 변하면서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실존적 고민 속에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따라가면서 민중교회로서, 민중교회 목회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선교적 지역교회의 시각에서 볼 때 민중교회는 신비로운 성령의 손길을 따라 선교활동의 내용이 다원화되었지만 과거 민중의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난 구원/해방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학함의 측면에서 보면 민중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공동체적 신학함이 두드러지고, 예언자적 목소리가 살아있고, 다원화된 민중선교 현장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선교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민중교회는 장벽/경계를 뚫고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을 수용하여 자신을 변화시켰고, 다양한 예언자적 도전을 하며, 현존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개입하는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은 민중교회의 선교활동을 통해 하나님 통치를 미리 맛보고, 민중교회는 선교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통치의 표징과 증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보육법 제정과 고용허가제 법제화와 이주민 관련 정책에 기여함을 통해 민중교회의 선교활동이 공적 선교활동임을 입증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사는 임박한 종말론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 2세대 교인들에게 그들의 종말론이

협소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새롭게 선교활동에 정진하게 했던 것처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북미교회는 문화와 복음과 교회간 삼자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신학적, 교회적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있다.⁵⁶⁾ 이에 반해 민중교회는 민중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반응과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부르심을 따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2) 한계

민중교회가 선교적 교회론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뛰어 넘거나 성취하고 있지만 한계들도 보인다. 민중교회가 목회자중심적인, 남성중심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과 신학함에서도 여전히 목회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교인들과 외부인들과 어떻게 신학함을 이뤄낼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기여민의 사례는 좋은 신학적 자료를 기독교성들이 어떻게 신학화를 할지가 관건이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협력하여 선교적 리더십을 양성하는 것도 큰 과제이다. 그리고 민중교회가 이주민선교, 마을 만들기, 생명선교를 전개하는 데 어떻게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이웃종교와 협력할지 구체적 방안과 좋은 사례들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이다.

56) Alan J. Roxburgh, *Missional Joining God in the Neighborhood* (Grand Rapids: Baker Books, 2011), 93-114.

Ⅵ. 나오는 말

이상의 논의에서 핵심적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적 교회는 복음 교회가 문화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의 내용과 대안을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사이에 삼자 대화를 통해 신학적으로 제시한다.

둘째,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사이의 삼자 대화라 함은 복음과 문화에 대한 자기이해가 문화(계몽주의, 근대성, 개인주의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을 극복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교회가 바르게 선교활동을 펼치려 한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불가피하게 선교와 교회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사람을 교회로 끌어 모으는 교회중심적 선교로부터 바른 신학적 방향으로의 회심과 삼위일체 신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적 방향을 지향한다.

넷째, 복음과 문화와 교회 간 삼자대화가 일어나는 현장은 지역교회로 지역교회의 구성요소는 신비, 기억, 선교이고, 공동체신학, 예언자적 신학, 외부자의 신학 등의 신학함과 사람의 장벽/경계를 너머 활동하는 성령을 식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하나님 통치를 미리맛보고 그 증인이 되는 종말론적 선교활동을 펼쳐야 한다.

다섯째, 선교적 리더십의 기초는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며, 성령을 따르는 리더십이며, 종말론적 미래로 나아가는 리더십이며, 피조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케 하는 그런 리더십이다.

여섯째, 선교적 교회는 복음과 문화와 교회 사이의 삼자 대화를

통해 북미교회의 위기에 대해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선교적 지역교회를 제시하며, 선교적 리더십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협소해 대안이 한계를 갖고 있다.

일곱째, 한국의 민중교회는 민중전통의 맥락과 시대적 과제와 씨름하면서 선교적 교회론이 제시하는 신학적 회심과 신학적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렇지만 민중의 부정적 반응과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활동 속에서 민중의 부정적 측면을 발견하고 민중교회 목회자의 실존적 고민 속에서 인간의 장벽/경계를 넘어 가는 성령의 역사를 식별하면서 민중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고, 민중교회의 선교가 다원화되었다.

여덟째, 민중교회는 다원화된 선교활동을 통해 신비, 기억, 선교로 구성되는 선교적 지역교회임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나라의 증인된 모습을 보여주며, 예언자적 선교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아홉째, 민중교회는 선교적 교회론으로부터 교인과 여성들을 선교적 리더십으로 세우고, 교인들이 신학함에 참여하는 길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주제어

선교적 교회, 문화, 지역교회, 신학함, 리더십, 민중교회
 missional church, culture, local church, doing theology,
 leadership, Minjung church

Abstract

The Minjung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issional Church

Hong Eyoul Hwang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main points of the missional church of the North America and to apply them to the Minjung church in South Korea so that the merits of both churches, the missional church and the Minjung church could complement each other.

It is not easy for us to understand the missional church, for the missional church is produced by the results of the theological dialogue among Gospel, culture and church in depth. Even though we agree with the theological assumptions and new orientations such as the Trinity, the reign of God and the *missio Dei*, it is almost impossible for us to be liberated from the attractional church. In other words, unless the mind-set of the attractional church is dead the missional church cannot be born. That is the reason why so many pastors looking for the missional church turn out to be satisfied with new mission strategies rather than to keep those theological orientation in mind.

As the local church is the focal point of the missional church doing theology of the local church is necessary for the missional church. There are three types of doing theology, community theology, prophetic theology and outsider theology. The local church should participate in the *missio*

Dei for the sake of the reign of God through identifying the boundary-breaking activities of the Holy Spirit, becoming a witness to the reign of God and challenging to the current unjust system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Foundations of the missional leadership are Jesus Christ who confronts the current power of the world, the Holy Spirit who leads the people of God toward the reign of God, and the recovered eschatology.

The Minjung church aims at the reign of God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missio Dei*,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s the Minjung church wrestles with the signs of the times the Minjung church is beyond the dialogue among Gospel, culture and church. From the beginning of the Minjung church on its theological orientation was radical enough to accept those theological assumptions and orientation of the missional church.

The Minjung mission became diversified from the mid-nineties for Minjung pastors who participated in the boundary-breaking mission of the Holy Spirit. This resulted in the change in the identity of the Minjung church. Doing theology of the Minjung church, however, is limited to Minjung pastors so laity and women of the Minjung church must involve in doing theology in the near future.

참고 문헌

- 대럴 구더/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 서울: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 기독교연합회 엮음. 『발로쓴 생명의 역사, 기독교연합회 20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김현수. 『똥교회 들꽃피는 마을 이야기』.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4.
- 레슬리 뉴비긴/ 최성일 역. 『선교신학개요』.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 _____/ 홍병룡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1998.
- 박보경.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적 회중 모색.” 『선교신학』 제32집 (2013): 201-234.
- 박천웅. 『이주민신학과 국경없는 마을실천』. 안산: 국경없는마을, 2006.
- 고 최주상목사추모위원회 편. 『맑은내 이야기: 고 최주상 목사 추모집』. 군포: 고최주상목사추모위원회, 2009.
-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1.
- 이후천.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접근방법들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 『선교와 신학』 제30집 (2012년 가을): 49-74.
- 정승현. “서구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 및 발전.” 『선교와 신학』 제30집 (2012년 가을): 13-45.
- 최동규. “GOCN의 선교적 교회론과 교회성장학적 평가.” 『선교신학』 제25집 (2010): 233-261.
- _____. “교회성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시론- 선교적 교회성장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선교신학』 제32집 (2013): 235-268.
- 최형근.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신학과 선교』 제31집 (2005): 369-389.
- 한국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30집 (2012년 가을): 75-116.
- 황홍렬.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선교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_____. “민중교회의 선교역사(1983-2005)와 새로운 과제.” 『선교신학』 제17집

- (2008년): 35-76.
- _____. “한국기독교의 디아코니아 사례와 선교신학적 의의.” 『선교신학』 제19집 (2008년): 11-40.
- Forrester, Duncan B. “Lesslie Newbigin as Public Theologian.” In *A Scandalous Prophet: The Way of Mission after Newbigin*, eds. Thomas F. Foust, George R. Hunsberger, J. Andrew Kirk, & Werner Ustorf, 3-12.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 Gelder, Craig Van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Mapping Trends and Shaping the Convers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 Hunsberger, George R. & Craig Van Gelder, eds. *Church Between Gospel & Culture: The Emerging Mission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6.
- Newbigin, Lesslie.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London: SPCK, 1986.
- Rouse, Rick & Craig Van Gelder/ 황병배, 황병준 역. *A Field Guide for the Missional Congregation: Embarking on an Journey of Transformation*. 『선교적 교회 만들기: 성공적인 교회변혁을 위한 지침서』. 고양: 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3.
- Roxburgh, Alan J. *Missional Joining God in the Neighborhood*. Grand Rapids: Baker Books, 2011.
- Roxbourh, Alan J. &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What It is, Why It Matters, How to Become One*. Grand Rapids: Baker Books, 2009.
- Wainwright, Geoffrey.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